

미국 '관세 폭탄' 확정시 "기아차 광주공장 직격탄"



사진은 기아차 광주 2공장 생산라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폭탄 부과 결정이 나올 것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지역 자동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고 25% 관세 폭탄이 현실화 될 경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생산라인 중단과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출도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실제 관세 폭탄 불똥이 한국산 수출자동차로까지 될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아차 광주공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력차종인 쏘울과 스포티지의 주력 판매지역이 북미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004년 12월 2세대 스포티지를 미국시장에 처음으로 수출한 이후

없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 받고 있지만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차량 가격 인상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장 판매 감소와 수익 약화로 이어져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라인 운영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기아차 광주공장이 멈춰 설 경우 고용 구조상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광주지역 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2018년 기준 광주시의 연간 총 생산액은 35조4000억원에 총수출액은 147억달러(17조4415억)로 집계됐다.

이중 기아차광주공장은 지역 총 생산액의 26.8%(9조5000억원), 총수출액의 40.8%(6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어 고율 관세가 현실화 되면 광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상상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광주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광주공장 주력 생산 '쏘울·스포티지' 북미 수출 비중 커...타격 불가피 지역 내 수출 기아차 40.8% 차지...협력사 줄도산·지역경제 타격 우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까지 수입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장 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해 지난 2월18일 보고를 받았다.

미 무역확장법에서는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관세부과를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이 국내 자동차산업의 운명을 가를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무역확장법이 발효돼 국내 수출 차량에도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완성차 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쏘울 부스터(EV 포함)와 스포티지를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쏘울과 스포티지는 35만718대다. 이중 60%를 차지하는 21만771대가 북미 지역으로 수출됐다.

차종별로는 쏘울 수출물량이 가장 많다. 16만4101대 중 70.5%를 차지하는 11만5738대를 북미 지역에 판매했다.

스포티지의 경우는 18만7617대 중 50.6%를 차지하는 9만5033대가 같은 지역으로 수출·판매했다.

이 같은 수출·판매 실적으로 볼 때 미국이 자동차 관세 25% 부과를 확정할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의 전체 생산물량 중 21만대는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협력업체가 50여곳에 달한다. 2·3·4차 협력업체 수백여 곳이 이들과 거래하고 있다.

미국 수출 타격이 현실화 돼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경우 협력사 대부분이 매출 급감에 따른 출도산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관세 폭탄이 예상대로 부과된다면 기아차 광주공장을 포함해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시급한 시점에 정부와 경제계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로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작년 금융사고액 1289억...중대형 금융사고가 83.2%

금감원,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발표

지난해 금융사고건수는 145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고 금융사고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발생했던 초대형 금융사고가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발생하지 않았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 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1204억원)

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145건으로 전년 대비 17건 줄었다.

사고 금액별로 살펴보면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전체 금융사고건수(145건)의 대부분(86.9%)를 차지했다.

5년 연속 사고금액은 '사기'가 최대,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사고건수는 중수서민이 53건으로 최대, 사

고금액은 '은행'이 623억원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협업체 등을 통한 지속적 사고예방 노력으로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금융사고가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건수도 5년 연속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가 출현하고 있다"며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테라' 품귀...도매사에 공급지연 안내"

출시 50일만에 130만 상자 판매...과거 히트제품 20~30만 상자 감안 3~4배

하이트진로는 14일 전국 주류도매사에 맥주 신제품 '테라'의 공급지연 및 조기 정산화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테라가 예상 수요를 뛰어넘는 호응으로 일부 품목의 물량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정도로 주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테라의 판매량은 지난 3월21일 출시 후 50일 만에 130만 상자를 기록했다.

그간 맥주 신제품과 비교해할 때

출시 초 최대 판매기록으로 하이트 맥스 드라이피니시 등의 첫 달 판매량이 20~30만 상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테라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하이트진로는 출시 보름 만에 전체 판매 목표를 조정하고 2배 이상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생맥주 등의 제품군 출시 일정도 다음달로 늦춰 현 수요를 충족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예상 수요를 크게 넘어선 인기로 원료조달이 다소 늦어져 일부 품목의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물량공급은 다음주 내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혼자 살아도 먹을 수 있지" 1인 가구 맞춤형 수박 대세

혼자 살면서 수박 사면 다 못 먹고 버린다는 얘기도 옛말이다. 롯데마트는 1인 가구 맞춤형 수박인 1~2kg 내외의 소과중 수박인 애플 수박은 물론 3~5kg 중과중 수박을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적인 수박은 10kg 내외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중과중 수박은 베게 수박과 블랙보스 수박이다.

베게수박은 모양이 베게처럼 길쭉하게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4~5kg 중과중 수박으로 길쭉하면은 흑색 호피무늬이고 속은 붉으며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가 특징이다.

블랙보스수박은 일명 망고 수박으로도 불린다. 타원 형태인 블랙보스수박은 2~3kg정도 크기로 길은 일반 수박보다 잔한 초록색이



며 과육은 노란색인 게 특징이다. 롯데마트는 이번에 출시하는 베게수박과 블랙보스수박을 시작으로 3~5kg 내외의 중과중 수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향후 전체 수박의 매출 중 30%이상을 중과중 수박으로 키울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오는 16일부터 경남 함안에서 수확한 베게수박을 9900원에, 블랙보스수박을 1만 1900원에 판다.

'5월인데 30도'...슬슬 달아오르는 에어컨 판매

6월이 채 안 됐는데,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자 유통업체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일과 12일 기온이 급격히 오르자 e커머스 업체들은 곧바로 에어컨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이베코리아가 운영하는 G9는 에어컨 4대 브랜드판 기획전을 열어 LG·삼성·위니아·캐리어 에어컨 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11번가도 오는 19일까지 에어컨 브랜드 대전을 열어 LG·삼성·대우위니아 등 인기 에어컨을 내놨다. 11번가에 따르면 올해 3~4월 에어컨 거래액은 4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18배 이상 급증했고 연평균 약 150%의 상승률로 거래가 계속 해서 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을 때 에어컨을 구매하면 주문이 밀려 배송부터 설치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소비자도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